

광주·전남 '1인 가구' 50만명 눈앞

광주·전남 인구수 325만명...0.4% 줄었지만 가구 수는 2.4% 늘어 광주 1인 가구 첫 20만 돌파...전남 1인 가구 고령비율 전국 최고

지난해 광주 1인 가구가 처음 20만 가구를 돌파하는 등 광주·전남 '1인 가구 50만'을 앞두고 있다.

급격한 고령화 여파로 광주·전남에서 혼자 사는 65세 이상 고령 가구는 15만 9000가구로 늘어났다.

하지만 광주·전남 주택 증가세는 1~2인 가구 증가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소가족화에 따른 주거 안정 대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8일 통계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11월1일 기준 지역 총가구는 광주 62만 6000가구·전남 78만 9000가구 등 141만 5000가구로, 전년(138만 1000가구)보다 2.4%(3만 4000가구) 증가했다.

광주 가구 수는 2.8%(1만 7000가구), 전남은 2.1%(1만 6000가구) 늘었다. 반면 총인구는 광주 147만 5000명·전남 177만 8000명 등 325만 3000명으로, 전년(326만 6000명)보다 0.4%(-1만 3000명) 감소했다. 광주 0.2%(-2000명), 전남 0.6%(-1만1000명) 줄었다.

인구가 줄어드는 가운데에도 가구가 분화하면

서 가구 수는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지역 1인 가구는 광주 21만 2000가구·전남 27만 4000가구 등 48만 6000가구로, 전년보다 8.0%(3만 6000가구) 증가했다.

광주 1인 가구는 전년과 비교하면 9.5%(1만 8000가구) 증가하면서 20만 가구를 돌파했다. 전남 1인 가구는 전년보다 6.8%(1만 7000가구) 늘었다.

전국적으로 1인 가구는 전년보다 7.9%(52만 2000가구) 증가하며 700만 가구를 넘겼다.

지역 1인 가구를 연령대별로 보면 광주 1인 가구 5가구 중 2가구(38.6%·8만 2000가구)는 20~30대였으며, 전남 1인 가구 40.8%는 65세 이상 고령자였다.

광주지역 65세 이상 1인 가구는 전년 4만 2000가구에서 지난해 4만 7000가구로, 11.1%(5000가구) 증가했다.

전남 고령 1인 가구는 10만 5000가구에서 11만 2000가구로, 6.4%(7000가구) 늘었다.

전남 1인 가구 가운데 고령자 비중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가장 높다. 전남 65세 이상 고령 1인 가구 비중은 통계가 나온 지난 2015년부터 7년 연속

40%대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광주·전남 두 지역 모두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유소년부양비는 줄고, 노년부양비와 노령화지수는 전년보다 증가했다.

'15~64세'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할 유소년인구의 부양비는 지난해 기준 광주 17.7·전남 17.6으로, 전년보다 각각 0.4, 0.3 감소했다.

반면 생산연령인구 100명에 대한 65세 이상 인구를 뜻하는 노년부양비는 1년 새 광주 0.9(2020년 19.3→20.2), 전남 1.5(35.5→37.0) 증가했다.

15세 미만 유소년 인구 100명에 대한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인 '노령화지수'는 전남(210.0)이 가장 높고, 세종(49.9)이 가장 낮았다. 전국 평균 노령화지수는 전년보다 10.5 증가한 143.0을 나타냈다.

광주 노령화지수는 106.5에서 114.3으로 7.7 증가했고, 전남은 198.2에서 201.0으로 11.7 늘었다.

노령화지수 상위 10개 시·군·구에는 고흥(69·624.9)과 신안(99·585.3)이 들었다. 반면 229개 시·군·구 가운데 하위 10위권에는 광주 광산구(63.5)가 225위로 순위에 올랐다.

한편 지역 주택 증가율은 광주 0.8%(4000호↑)·전남 1.2%(9000호↑)로, 총가구 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했더라도 전국 평균 증가율(1.5%)을 밑돌았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연일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는 28일 광주 북구 상시 선별진료소에서 보건소 의료진이 찌는 듯한 더위에 냉소끼를 입고 업무를 보고 있다. 이날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됐다. /김진수 기자

전문가 “코로나19 재유행 1~2주내 정점”

“정부, 중환자 수 정확히 예측해 병상 충분히 확보해야”

여름철 코로나19 재유행의 정점이 당초 예상보다 이른 1~2주내 도달할 수 있고, 정점의 규모도 기존 전망치보다 작은 수준에서 형성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28일 질병관리청이 마련한 코로나19 전문가 초청 설명회에서 “여러 근거를 종합했을 때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평균 30만명 정도까지는 도달하기 조금 어렵다고 생각한다”면서 “상당한 규모의 유행은 이어지고, 다음 주와 그다음 주 정도까지는 정점을 형성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앞서 질병청과 전문가들은 이번 유행이 다음 달 중순 이후 정점을 찍을 것이며 하루 최대 30만명 대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 교수는 “전문가들이 2~3주 전에 예측했던 것은 최악의 시나리오에 가까운 예측이었는데, 지금은 정보의 확실성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유행 규모가 예측보다 조금 감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 주 유행 증가 속도가 많이 감소했다. 이는 1주나 2주 이내에 정점에 도달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유행 규모가 예상보다 감소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 정 교수는 ▲4차정점 참여가 예상보다 높아 감염자 수 감소에 도움이 되고 ▲‘퀵테스트’로 불리는 BA.2.75 변이의 전파력이 우려만큼 높지 않아 유행을 주도할 가능성이 작아지고 있으며 ▲국민 대부분이 오미크론 대유행 때 감염됐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재감염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다만 정 교수는 현재 유행이 전 세계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자료에 바탕을 둔 정확한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고, 확진자 수보다 중환자 수를 정확히

예측해 병상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설명회는 코로나19 재유행 관련 국민의 궁금증을 질병청 콜센터나 국민소통단 등을 통해 수렴해 전문가들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부는 기존 유행 때와 달리 이번 유행에서는 강제적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자율방역’을 적용하고 있는데, 거리두기 제도입 가능성에 대한 질문들이 다수 나왔다.

백경란 질병청장은 확진자, 격리자에 대한 지원이 축소돼 자율방역의 수용성이 떨어진다 지적에 대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기 위해 (그 외의) 지원이 축소된 부분이 있다. 송구스럽다”며 “다만 상대적으로 본인부담금이 큰 중환자나 입원치료를 위한 치료비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광주·전남에서는 이날 0시 기준 각각 2469명, 2418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전국적으로는 전남(10만285명)보다 1만1901명 줄어든 8만8384명이 추가 확진됐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연합뉴스

지분, 땅 삽·니다

맹지는 안삽니다.
문의. 010-3605-5000

미국에 한인 이름 딴 ‘백인숙 다리’ 생긴다

앵커리지시, 어려운 이웃에 음식 제공 백인숙씨 공헌 기려

미국에서 처음으로 한인 이름을 딴 다리가 알래스카주 앵커리지시에 생긴다.

‘인숙백 브릿지’(Insook Baik bridge)로, 1981년부터 앵커리지시에 사는 백인숙(71) 씨의 이름을 땄다.

전장 235m의 이 다리는 2008년 6차선으로 건립됐고, 지금까지 이름이 없었다. 마운틴뷰 구역과 브라가우 구역에 있는 글렌 하이웨이에 있다.

다리 이름의 명명은 올해 초 개관 타르 주 하원의원의 법안(HB 359) 발의로 시작됐다. 이후 조시 레바크 주 상원의원이 이 법안을 ‘SB 203’에 추가했고, TV 생중계 등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 최근 상원까지 통과했다. 이 같은 사실은 개관 타르 의원의 보좌관인 한인 송명근 씨가 28일 연합뉴스에 제보하면서 공개됐다.

송 씨는 연합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개관

타르 의원은 한국과 관련한 어떠한 법안도 제출하지 않았지만, 이번에 ‘인숙백 브릿지’ 법안을 발의해 통과시키는 데 앞장섰다”며 “지난 6월 25일 한국-알래스카 우정의 날” 기념식에서도 백 씨의 업적은 인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앵커리지시는 다음 달 7000 달러(약 914만 원)를 들여 간판을 부착하고, 명명식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송 씨는 전했다.

다리 이름의 주인공 백인숙 씨는 부산 출신으로 1980년 미국 뉴욕에 이민했다가 이듬해 앵커리지로 이주했다.

‘마운틴 뷰 쉘’ 주유소를 운영하는 그는 매년 추수감사절에 어려운 이웃에게 음식을 무료로 제공하는 등 오랜 기간 선정을 베풀었다.

현지 앵커리지 데일리 뉴스 등 언론에 여러 차례 보도가 됐다. /연합뉴스

종이에 쓰던 입국세관신고 8월부터 모바일로 편하게

내달부터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과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여행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세관에 휴대품 신고를 할 수 있다.

관세청은 ‘여행자 세관 신고’ 모바일 앱을 개발하고 입국장에 모바일 자동 심사대를 설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여행자가 앱을 통해 휴대품을 신고하면, 생성된 QR코드를 자동 심사대에 인식시켜 세관 신고를 하는 방식이다.

여행자는 자신의 여권을 촬영해 앱에 개인 정보를 등록하면 된다. 면세 범위를 넘는 물품에 대한 예상 납부세액도 대략 계산할 수 있다.

앱 설치를 하지 않아도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세관 신고가 가능하다.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반입하는 여행자는 현행과 같이 물품검사, 관세 납부 등 후속 절차를 밟으면 된다.

관세청은 모바일 앱을 통해 통관에 드는 시간을 줄이는 등 여행자의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관세청은 내국인 가운데 성실신고 여행자는 세액을 온라인으로 납부고지해 통관 이후 납부할 수 있도록 편의 기능을 올해 말까지 추가로 개발할 예정이다.

모바일 휴대품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경품 추첨 등의 이벤트도 진행한다. /연합뉴스

70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 공고 제 2022 - 8호

매립지등 관리·처분계획 공고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영산강3·2지구 화원1공구 매립지등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승인되어「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12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관리·처분 대상면적 (단위: ㎡)

토지번호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계		3필지		2,247.9
1	전남 해남군 문내면 고평리	882	전	865.0
2	전남 해남군 문내면 고평리	883	전	535.7
3	전남 해남군 문내면 고평리	884	전	847.2

2. 관리·처분 대상지(매각대상지) 결정방법

- 매각대상지 결정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16조(매립지등의 매각절차), 제17조(매립지 등의 매각방법), 제18조(매립지등의 매각예정가격) 등 관련법에 따라 진행
- 입찰참가자격: 입찰보증금 납부 기간 내에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고 소정의 입찰등록을 필한 자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
- 입찰방법: 공개경쟁에 따른 총액 입찰
- 낙찰자결정: 2인 이상이 응찰할 경우 예정가격이상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낙찰자의 서류하자 및 입찰보증금 한도초과 응찰 시 입찰은 무효이며, 자하위 응찰자로 결정하고, 낙찰금액이 2인 이상 같은 금액일 경우는 현장에서 추첨으로 결정)

• 기타사항

- 입찰 시 공사의 지정계좌로 입찰보증금 5/100 이상의 금액을 입금하여야 함
- 낙찰 시 매각대금 전액을 매각통지서에 적힌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함.
- 기타 매각 관련 사항은 추후 매각공고문으로 명시

3. 관리처분 일정

- 매각공고 시행: 2022.08.22. ~ 2022.09.02
- 입찰 신청서 접수: 2022.08.22. ~ 2022.09.02
- 개찰·낙찰자 발표: 2022.09.05
- 매각계약 체결: 2022.09.12.

※ 상기 일정은 업무추진(감정평가 등)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기타 관련문의는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 유지관리부 (061-270-64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함
2022년 7월 29일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장

발생암매각공고

1. 입찰일정/발생토성 매각
호남고속철도2단계 1공구 토석량 292,696㎥(자연상태기준)상당, 6공구 토석량 182,454㎥(자연상태기준)상당 단, 현행 사상에 따라 전체 수량이 변경(증,감) 될 수 있음.

구분	단위	토사	통화량	연경량	합계	비고
1공구	㎥	-	-	292,696	292,696	자연상태
6공구	㎥	-	-	182,454	182,454	자연상태

2. 현상설명회, 입찰등록 및 입찰일시 (임시: 호남고속철도2단계 1공구 및 6공구 현상서부설)

구분	1공구	6공구	비고
현상설명회	2022년 08월 05일 14:00	2022년 08월 04일 14:00	
입찰등록마감	2022년 08월 12일 14:00	2022년 08월 11일 14:00	
개찰	2022년 08월 12일 14:00	2022년 08월 11일 14:00	
낙찰자선정	2022년 08월 17일	2022년 08월 17일	

3. 입찰방법: 입찰 매각 입찰

가. 낙찰자결정: 1㎡당 원색대가 최고가인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며, 최고가 업체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문면가격이 가장 가까운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 (계약관공의 문면가격이 상향 평행에 의함)

• 발생암 운반비용에 대한 단가는 견당서 표준시정단가 및 표준용량으로 산정하며, 시공서 운반단가를 초과하는 비용은 입찰자가 부담

나. 운동사항

1) 현상설명회 현재 “골재채취법”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설계 및 파쇄업을 등록한 자로서 용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2) 시공장 관련 인허가 서류를 현상설명 시 제출하여야 한다. (아직장 또는 골재 생산시설 위치가 명확히 표기되어 있어야 하며 발생암채취가 가능한 중반반 부지번호)

나. 운동사항

1) 현상설명회 기준은 세공이 체납된 사실이 없어야 하며, 현상설명 시 국제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입찰참가 시 제출한 반반입(아차정 또는 골재 생산시설)은 발파암 반입, 골재생산 등을 진행함에 있어 각종 법률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어야 함

6. 입찰업체 제출서류 (입찰관련 서류는 현상설명회 참석시 제출)

가. 골재생산시설 또는 시공장 위치가 명확히 표시된 위치도 1부
나. 골재 선별·파쇄 및 사입제 등록증 1부
다. 반반입인증서 및 사용연장제 1부
라. 시공서 납입증명서 1부
마. 위임장(대리인 참석서) 및 재직증명서 1부

7.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현상설명서, 계약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등록을 마친자는 모든 사항을 숙지한 것으로 간주함.
나. 기타 상세한 사항 문의(주요문의)는 별첨함

▶ 매 각 차: 국가철도공단 호남본부

구분	1공구	6공구
계약대인	(주)호남고속건설	현대엔지니어링(주)
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다시면 영산로 4533-7	전라남도 무안군 청계면 해안로 287
전화번호	시공서 (주)호남고속건설 061-336-9002	시공서 현대엔지니어링(주) 070-4348-6108
계약대인	김리민 (주)시공건설 070-4124-4598	김리민 (주)도원엔지니어링 061-453-0609

2022년 7월 29일
호남고속철도2단계(교막연~목포) 제1공구 및 제6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업 계약대리인

채권신고공고(1차)

본 회사는 2022년 7월 26일 주주총회의 동의로 해산결의 되었으므로 본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분은 2022년 10월 1일 까지 그 채권액을 본 회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위 기일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2년 7월 29일
남도산업개발 주식회사
영암군 삼호읍 나들로 202
청산인 유병주

채권신고공고(1차)

본 회사는 2022년 7월 26일 주주총회에서 해산결의 되었으므로 본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분은 2022년 10월 1일 까지 그 채권액을 본 회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위 기일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2년 7월 29일
남도개발 주식회사
영암군 삼호읍 나들로 202
청산인 유병주

채권신고공고(1차)

본 회사는 2022년 7월 26일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산결의되었으므로 본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분은 2022년 9월 29일까지 그 채권액을 본 회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위 기일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됨을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29일
의암개발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연선로 100, 에이동 109호 (신용동·철단2지구대성베르힐)
대표청산인 류택 열

합병공고

서기 2022년 07월 25일 개최한 다음 양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주)에녹인수펀널(이하 “갑”)은 주식회사 광명스치로폴(이하 “을”)을 합병하여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을”회사는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 게재일 익일부터 1개월 이내에 관계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에 공고함.

2022년 7월 29일
“갑” (주)에녹인수펀널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동천동)
대표이사 조문자

2022년 7월 29일
“을” 주식회사 광명스치로폴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550번길 39-5(동천동)
대표이사 홍석우

해초(다시마, 미역, 건어물) 및 냉면, 수제비, 국수 제조 사업하실 분 환영합니다.

완도군 완도를 죽청리 농공단지 내

면적: 공장 150평,
냉동창고 200평 (평냉동, 냉장 3칸 높이 9m),
지게차 2대 (전동식)

시 설: 최신기계설비반비, 공장 즉시 가동 영업 가능

금 액: 보증금 및 임대료 상호협의

주인직 ☎010-2390-5343, 010-9300-5072

kwangju.co.kr

光州日報

광고신청 및 게재문의
062.227-9600

光州日報

구독문의

신문

예향

220000055510